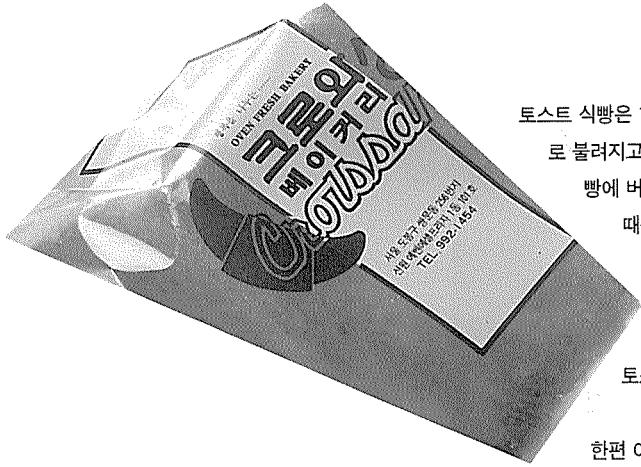


우리집 인기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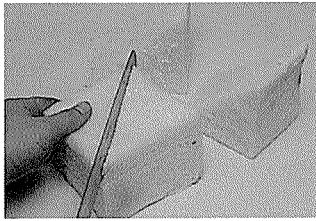
# 도너트빵





토스트 식빵은 현재 러스크, 화이트브레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고 있다. 그러나 가장 정확한 명칭은 완성된 식빵에 버터, 생크림 등을 발라 한번 더 구워낸 것이기 때문에 '토스트 식빵'이다. 토스트 식빵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고식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. 따로 식빵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판매날짜가 지난 식빵을 삼각형으로 잘라 토스트용 재료를 발라주어 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이 경우 원가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. 한편 이 제품을 만들 때 식빵에 발라주는 버터 등을 뜯으로 한번 칠하듯이 발라주는 것이 좋다.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오븐에서 굽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작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.

## 만드는 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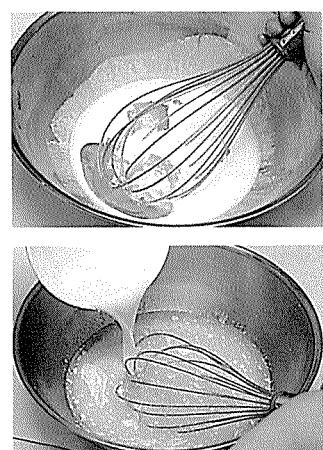
식빵의 각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삼각형으로 잘라준다. (우유 식빵들 500g짜리로 만들 경우 4조각 (125g)이 나온다.)



재료 및 원가계산표 (토스트 식빵 48개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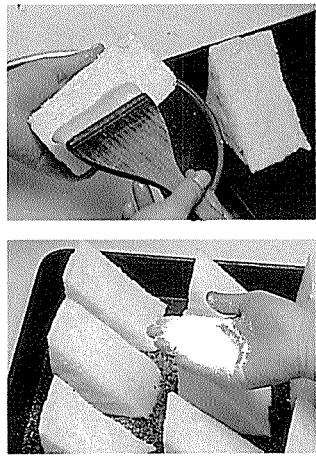
	재료	중량(g)	단가(원)	가격(원)
원 재료	강력분	2,400	386/kg	926.4
	박력분	600	345/kg	207
	설탕	240	566/kg	135.84
	마야가린	240	2,649/kg	635.76
	소금	60	850/kg	51
	계란	6개(300)	70/개	420
	물	1,650		
	이스트	60	5,000/kg	300
	분유	300	7,000/kg	2,100
	S-500	0.3	5,000/kg	1.5
합계		5,850.3	0.82/g	4,777.5
토스트용 재료	버터	700	6,450/kg	4,515
	설탕	350	566/kg	198.1
	계란	5개(250)	70/개	350
	생크림	50	2,300/l	115
	합계	1,350	3.84/g	5,178.1
재료 총합계		7,200.3	1.38/g	9,955.6
총합	비닐봉투	48	7/장	336

2 버터를 중탕으로 녹인 뒤 설탕과 섞는다.  
3 생크림과 계란을 섞어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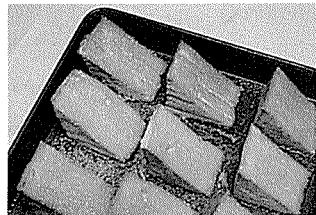
②와 ③을 고르게 섞어준다. (이 때 ②의 온도가 80°C를 넘

으면 계란이 익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.)  
④를 자른 식빵에 고르게 발라 준다. (한번씩만 봇물을 해야만 오븐에서 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.)



설탕을 뿌려준다.

6 7 120°C에서 30분 정도 굽는다. (약한 온도에서 장시간 구워야 원제품의 색깔이 좋다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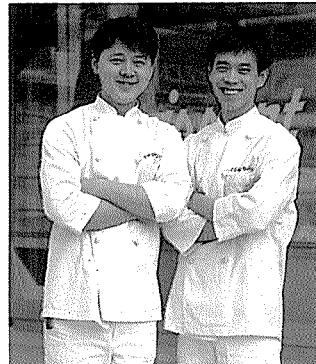
\*우유식빵의 총 중량 5,850.3g중 재료 손실분 0.3%(17.55g)를 제외하면 5,832.75g이다. 따라서 500g짜리를 사용할 경우 약 12개의 식빵이 나온다.

개당 중량	약 125g
개당 생산원가	179.5원(포장비포함)
개당 판매가	800원
개당 원가비율	22.4%



## 도봉구 쌍문동 크로와상 베이커리

쌍문동 신원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크로와상베이커리(대표 김충의, 공장장 윤영수)가 오픈한 것은 지난 1월. 그러나 뛰어난 제품 때문에 벌써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다.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신제품 교체가 빠르기 때문에 실증을 잘 내는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간다. 신원아파트의 단지규모가 작아(70세대)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도 기꺼이 길을 건너와 빵을 살 정도로 인기있는 제과점이다. 이곳의 주요고객은 30대 주부들이다. 또 근처에 있는 선덕중·고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들러 출출한 배를 달랠 때 휴게실로도 애용된다. 이번에 크로와상베이커리에서 추천한 제품은 토스트식빵. 이 제품의 특징은 날짜를 넘긴 재고식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.



(윤영수, 최경열)